

국민주택규모에 있어서 거주자의 수납의식에 관한 연구

-아파트 수납공간 표준화를 위한 연구(I) -

About the residents' attitude for the storage in economical sized housing

- For the standardization of storage space in Apartment(Part I) -

정	미	란*
Jung,	Mi	Ran
안	옥	희**
Ahn,	Ok	Hee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how residents differentially perceive the storage according to the housing types and siz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residents in the tenement house dissatisfy the storage space more than those in the detached house.
- 2) It is the arrangement that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le storing.
- 3) It is non-daily goods that is the most difficult item to store.
- 4) Most information about storage is obtained from mass media.

I. 緒 論

人間이 생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生活分野는 衣·食·住生活의 세분야로 大別된다. 그러나 衣나 食에 관계되는 生活行動을 엄밀히 관찰해

보면 住生活이라는 범주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衣生活이나 食生活이 住生活에 밀착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어떤 의미로는 衣生活和 食生活에 관계되는 생활행동은 住生活を 이룸으로써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우기 住生活에 관계되는 生活分野는 衣·食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育兒, 教育, 宗教, 社會, 娛樂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며, 또 주거내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物理的·生理

* 정희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연구조교
 ** 정희원,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的 行動에서 부터 生活感情을 포함한 心理的 行動까지도 住生活의 한 부분인 것이다¹⁾.

이와같이 人間이 행하는 모든 생활은 住生活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住生活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거의 기능은 인간의 모든 생활을 포괄할 수 있어야만 한다²⁾.

그런데, 인구증가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 주거공간이 점점 좁아져가는 것과는 반대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器物, 醫療, 食料品, 消耗品 등이 필요하여 日常用品이 차지하는 공간은 오히려 늘어감에 따라 생활공간의 확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후조건, 특징에서 오는 사계절의 생활용품 보유나 절충식의 생활용품 보유³⁾⁻⁶⁾,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에서 소유의식이 강함⁷⁾ 등의 원인으로 인해 생활공간은 더욱 복잡하고 이것이 주거조건을 보다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收納과 整理를 계획적으로 研究하지 않으면 비능률적인 생활을 만드는 要因이 된다.

이와같이 현대생활에 있어 收納空間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나, 수납공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더우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수납용 공간계획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으며, 아파트의 획일적인 공간구성은 그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각기 다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거주성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물품수납에 있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수납공간의 未備는 바로 주거생활의 無秩序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⁸⁾ 주택에 있어서 수납공간 계획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⁸⁾⁻¹¹⁾에 있어서는 주택유형별 그리고 규모별에 있어서 수납과 수납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연구를 행한 것이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납공간 표준화를 위한 그

기초적 단계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수납에 대한 의식구조를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납공간 계획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研究 方法

1. 조사 방법 및 내용

먼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의 설정을 위해 1991년 6월 21일~1991년 6월 28일에 걸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시내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16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154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평수에 따른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20~29평에서 가장 불만족하게 나타났다.

즉, 비교적 넓은 평수보다는 국민주택규모에서 수납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수납공간 확보가 생활공간 확보보다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아 절대공간 부족이 결과적으로 수납공간의 협소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 규모를 국민주택규모로 정하고, 조사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1991년 11월 1일~1991년 11월 31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주택유형별 특징을 밝히기 위해 조사 대상은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주택(189가구)과 공동주택(276가구)의 총 465가구로 하여, 대상가구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수납공간에 대한 의식과 수납행위에 대한 의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법이다.

2. 자료정리

조사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빈도, 평균, X^2 -검증,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 Analysis)등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II. 조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먼저 조사대상 家口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주택의 평균 규모는 20평으로 나타났고, 공동주택은 평균 23평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가족수는 4.3인으로 가족수는 주택규모가 넓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주부연령의 전체적인 평균은 39세로 주부연령도 평수가 클수록 증가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 106만원으로 국민경제제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1991년 도시가계 월평균 소득 114만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을 특정집단으로 제한하지 않은 다른 연구¹²⁾와 비슷한 가구특성으로 대상분포가 고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으로 밝혔다. <표 1>.

<표 1>에 의하면 가족수에 있어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는 2인이하와 6인이상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택규모가 큰것으로 나타나 가족수와 규모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건전한 주거환경을 가진 것¹³⁾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주부의 학력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고, 집단간에도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에 차이를 보여 고학력일수록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주부연령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규모가 증가하였고, 집단간에서 40세 이하의 집단과 그 이상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표 1> 일반 변인에 따른 주택규모와의 차이

변인(구분)	평균(빈도)	F값 scheff-test	
가족수 2인	1.58(31)	3.70**	
3인	1.98(45)		
4인	2.00(204)		
5인	2.05(118)		
6인 이상	2.25(67)		
남편 학력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1.79(110) 1.90(180) 2.30(175)	16.96***
주부 학력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1.87(181) 2.05(186) 2.27(98)	7.68***
주부 연령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1.80(41) 1.94(248) 2.22(134) 2.07(42)	4.48**
남편 직업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 사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 운수업 단순 노무자 기타	2.17(60) 2.29(31) 2.04(123) 1.94(70) 1.65(23) 2.05(99) 1.90(10) 1.90(49)	1.70
월평균 소득	60만원 미만 60~ 90만원 90~120만원 120~150만원 150~180만원 180만원 이상	1.87(63) 1.82(154) 1.92(97) 2.25(53) 2.36(45) 2.49(53)	8.89***
주택 종류	공동주택 독립주택	2.12(276) 1.88(189)	9.25**
주택 소유 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2.26(226) 1.76(153) 1.42(38) 2.25(8)	21.62***
거주 년수	1년미만 1~3년 3~5년 5~7년 7년 이상	2.00(69) 2.09(150) 1.92(102) 2.21(56) 1.92(88)	1.76

· 유의수준 * $p < .05$ ** $p < .01$ *** $p < .001$
· A, B : 다른 문자로 표기된 것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있음

보였으며, 각 집단간에도 차이가 있어 월평균 소득 90만원 미만과 90만원 이상의 집단에 차이가 나타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규모가 넓게 나타났다. 즉, 40세를 기준으로 그리고 소득 90만원을 경계로 규모의 차이를 보여 주택규모가 경제력과 생활안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때 “40세”와 “90만원”이 주택규모 예측의 하나의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구사용에 대한 연구를 평수별로 한 이 명옥의 연구결과³⁾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대상

자들의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면 좀더 신뢰도 높은 결과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2. 수납공간에 대한 의식평가

주택종류와 규모에 따른 수납공간에 대한 의식 차이는 <표 2>와 같다.

먼저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고찰해보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가 40.6%, 「만족」이 19.2%, 「불만」이 40.2%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표 2> 주택종류, 규모에 따른 수납공간에 대한 의식

변 인(구분)	Row Total N(%)	주택종류(%)		비 고	규모(%)			비고	
		공동주택	독립주택		16평미만	16~26평	26평이상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5(1.1)	1.8	0.0	X ² =30.12*** df=4	1.3	0.7	1.2	X ² =52.85** df=8
	대체로 만족	84(18.1)	21.0	13.8		9.7	14.4	29.1	
	그저 그렇다	189(40.6)	30.8	55.0		31.8	52.1	38.8	
	약간 불만	134(28.8)	32.2	23.8		35.1	25.3	26.1	
	매우 불만족	53(11.4)	14.1	7.4	22.1	7.5	4.8		
부족한 수납공간을 위해 취한 방법	가구마련	191(41.1)	44.2	36.5	X ² =7.10 df=4	38.3	43.2	41.8	X ² =27.75*** df=8
	선반설치	149(32.0)	33.3	30.2		39.0	26.0	30.9	
	창고설치	52(11.2)	9.1	14.3		6.5	11.0	15.8	
	집구조변경	54(11.6)	10.1	13.8		16.2	12.3	6.7	
	기타	19(4.1)	3.3	5.3	0.0	7.5	4.8		
부족한 수납공간에 대한 개선못한 이유	경제적이유	130(28.0)	22.5	36.0	X ² =46.11*** df=5	31.2	32.9	20.6	X ² =39.78*** df=10
	시간적이유	41(8.8)	9.1	8.5		4.5	8.2	13.3	
	공간적이유	169(36.3)	47.8	19.6		26.6	34.2	47.3	
	본인소유의집이아님	84(18.1)	12.0	27.0		28.6	16.4	9.7	
	곧 이사를 가기에	33(7.1)	6.9	7.4	7.8	5.5	7.9		
	기 타	8(1.7)	1.8	1.6	1.3	2.4	1.2		
부족한 수납공간확보의 여건이 구비되면 취하고 싶은 방법	가구마련	118(25.4)	23.9	27.5	X ² =10.15* df=4	27.3	24.0	24.8	X ² =13.87 df=8
	선반설치	72(15.5)	17.0	13.2		14.9	12.3	18.8	
	창고설치	53(14.4)	12.0	10.6		13.0	6.2	14.5	
	집구조변경	196(42.3)	39.1	46.6		39.0	52.7	35.8	
	기타	26(5.6)	8.0	2.1	5.8	4.8	6.1		
Dead Space의 수납공간으로써의 활용여부	예	334(71.8)	77.5	63.5	X ² =10.25** df=1	75.3	70.5	69.7	X ² =1.42 df=2
	아니오	131(28.2)	22.5	36.9		24.7	29.5	30.3	
Total	N	465	276	189	465	154	146	165	465
	(%)	(100.0)	(59.4)	(40.6)	(100.0)	(33.1)	(31.4)	(36.5)	(100.0)

유의수준 * p<.05 ** p<.01 *** p<.001

어느쪽도 아닌 “그저 그렇다”를 보는 해석상의 차이*1)는 있을 수 있으나,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족·불만족 만을 볼 때 불만족 집단이 만족의 배이상임을 알 수 있다. 주택종류와 규모에 있어서 각각 $p < .001$,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택종류별로는 독립주택(30.2%)에 비해 공동주택의 불만족도(46.3%)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종류가 무엇이냐 보다는 그 내부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규모별로 보면 주택규모가 증가할 수록 불만집단의 비율이 줄고 만족이 늘어 상대적으로 좁은 16평미만(11%)에 비해 26평이상(30.2%)의 만족비율이 약 3배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주거공간의 넓이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가구마련, 선반설치, 집구조 변경의 순으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였다. 주택규모의 변인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 16평미만에서는 「선반설치」가 많았고, 16~26평 이상에서는 「가구마련」이 많았다. 이외 창고설치나 집구조 변경 등은 주택소유 상태에서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도 그 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규

복⁹⁾의 연구에 있어서도 수납시설을 대체적으로 가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같았다. 이와같이 수납시설을 이동식 가구나 손쉬운 보조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계획시 수납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따르지 않으면 이는 곧 가구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⁰⁾.

부족한 수납공간에 대해서 실제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공간적 이유」가 36.3%, 「경제적 이유」가 28.0%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종류, 규모에 따라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공동주택에서는 공간적 이유, 독립주택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수납공간을 실제 개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본 연구 대상의 공동주택(평균 23평)과 독립주택(평균 20평)의 규모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조금이기는 하나 좀더 큰 규모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간적 이유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공동주택의 평면 계획상에 있어서 수납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규모별로는 16평 미만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수납공간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16~26평과 26평 이상에서는 공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표 3>에서도 나타났듯이 16평미만에서는 주택소유 상태가 자가(36.4%)보다도 타가(63.6%)의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표 3> 주택규모별 주택소유 상태와의 차이 N(%)

주택규모 주택소유	16평미만	16~26평	26평이상	Row Total
자 가	56(36.4)	86(58.9)	124(75.2)	266(57.2)
전 세	72(46.8)	46(31.5)	35(21.2)	153(32.9)
월 세	25(16.2)	10(6.8)	3(1.8)	38(8.2)
기 타	1(0.6)	4(2.7)	3(1.8)	8(1.7)
비 고	$X^2=59.61^{***}$			df=2

유의수준 *** $p < .001$

1) 의사결정에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그렇다”, “어느쪽도 아니다”라는 집단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러한 집단을 어느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중간적 태도를 취하는 응답자들은 정말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상태일 경우와 성격에 따라 자기의견을 확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 혹은 평가가 절대 평가로써 비교대상이 없으므로 하여 판단내리기에 애매한 경우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이들을 잠재적인 만족(혹은 불만), 소극적 만족(혹은 불만)으로 나누어 분류하기도 하고³⁾, 전체수에 비해 적은 수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면 결과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우¹⁴⁾ 또는 분석방법에 따라 기준을 두가지만으로 해야 할 경우¹⁵⁾는 이러한 애매한 데이터를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택하기로 한다.

나타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개선하지 못하는 점을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고 들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건이 구비된다면 전체적으로는 42.2%가 「집구조 변경」을 원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구를 마련하겠다」, 「선반을 설치하겠다」, 「창고설치」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다. 주택종류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으며 공동주택과 독립주택 둘다에서 「집구조 변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주택종류에 상관없이 그 내부 구조상의 문제점과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Dead Space는 「죽은 공간」 내지는 「비활용 공간」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공간효율 극대화 방법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¹⁶⁾. 또한, 정규복⁹⁾은 부족한 수납장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절대 면적을 크게 하든가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현 가능한 것은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유 및 殘餘空間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납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Dead Space(침대밑, 탁자밑, 가구위, 구석진 곳)의 활용여부는 전체적으로 71.8%가 수납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어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종류의 변인이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독립주택보다 Dead Space 활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주택에 비해 획일적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거공간에 있어서 수납공간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Dead Space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수납행동에 대한 인식평가

주택종류, 규모의 변인에 따른 물품수납 행동에 대한 인식은 <표 4>와 같으며, 지면 관계상 유

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에 대해서만 고찰하도록 한다.

생활용품의 수납시 가장 고려하는 순위 즉, 수납의 비중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에 67.3%, 「보관」에 24.5%, 「장식」에 8.2%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주택규모에 있어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수별의 경향은 전체와 동일하며 그 비율에 약간의 차이를 보일뿐이다.

수납하기 가장 힘든 항목은 전체적으로 「비일용품(25.8%)」, 「취미, 학습용품(25.2%)」, 「의류용품(22.2%)」, 「식생활용품(18.7%)」, 「일상용품(8.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종류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의류용품」 및 「비일용품」, 독립주택에서는 「취미, 학습용품」을 수납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수납설비로써 옷장, 이불장, 서랍장, 화장대, 문갑, 책상, 간이장, 행거등의 소유율이 높은데도 모든 방에서 옷장, 서랍장의 부족율을 제일로 꼽고 있는 사실¹¹⁾로 보아 「의류용품」을 수납하기에 가장 힘든 항목으로 들고 있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들 항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의 미확보(44.3%), 가족구성원들의 사용후 정돈미비(19.6%), 불필요한 수납물이 많아서(17.2%),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17.0%) 등을 들고 있으며 주택종류의 변인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납하기 힘든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있어서 그 항목과의 관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표 5>와 같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보면 식생활용품, 의류용품, 취미·학습용품, 비일용품을 수납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는 수납공간의 미확보를 들고 있었으며, 일상용품은 가족 구성원의 사용후 정돈 미비로 인하여 수납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결과에서 공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수납관련의 제일의 원인이라는 하나 거주자들의 수납에

〈표 4〉 주택종류, 규모에 따른 수납행동에 대한 의식

변 인(구분)	Row Total N(%)	주택종류(%)		비 고	규모(%)			비고		
		공동주택	독립주택		16평미만	16~26평	26평이상			
수납의 비중도	정 리	313(67.3)	66.3	68.8	X=0.32	67.5	60.3	73.3	X ² =15.85**	
	보 관	114(24.5)	25.4	23.3		27.3	32.2	15.2		
	장 식	38(8.2)	8.3	8.3	df=2	5.2	7.5	11.5		df=4
수납하기 가장 힘든 항목	식생활용품	87(18.7)	20.7	15.9		20.8	17.8	17.6	X ² =15.03	
	의류용품	103(22.2)	26.4	15.9	X ² =26.29***	15.8	24.0	26.7		
	취미, 학습용품	117(25.2)	17.0	37.0	*	29.2	28.1	18.8		
	일상용품	38(8.2)	9.4	6.3		5.8	6.2	12.1		df=8
	비일용품	120(25.8)	26.4	24.9	df=4	28.6	24.0	24.8		
수납하기 곤란한 항목	불필요한수납물이많다	80(17.2)	15.2	20.1		11.7	21.2	18.8	X ² =11.76	
	수납공간의 미확보	206(44.3)	51.1	34.4	X ² =22.18***	53.2	38.4	41.2		
	사용후 정돈미비	91(19.6)	18.8	20.6	*	17.5	19.2	21.8		
	주위환경파괴올리지않음	79(17.0)	12.0	24.3		16.9	18.5	15.8		df=8
선택이유	기 타	9(1.9)	2.9	0.5	df=41	0.6	2.7	2.4		
신문, 잡지류 비치기간	1개월 미만	211(45.4)	48.6	40.7		46.8	40.4	48.5	X ² =6.37	
	1~3개월	124(26.7)	29.7	22.2	X ² =13.36**	27.9	27.4	24.8		
	3~6개월	55(11.8)	9.1	15.9		8.4	13.7	13.3		
	6~12개월	33(7.1)	5.8	9.0	df=4	7.1	9.6	4.8		df=8
	12개월 이상	42(9.0)	6.9	12.2		9.7	8.9	8.5		
사용하지 않는 용품 처리방법	보관한다	147(31.6)	38.6	36.0		34.4	28.8	31.5	X ² =6.99	
	친지, 고아원에기증	191(41.1)	44.9	35.4	X ² =7.72	39.6	45.9	38.2		
	물물교환	16(3.4)	4.0	2.6		5.2	2.1	3.0		
	버린다	96(20.6)	18.5	23.8	df=4	16.9	21.2	23.6		df=8
	기타	15(3.2)	4.0	2.1		3.9	2.1	3.6		
취미생활 수납공간 확보여부	예	101(21.7)	15.9	25.7	X ² =5.84**	13.6	22.6	28.5	X ² =10.43**	
아니오	364(78.3)	84.1	74.3	df=1	86.4	77.4	71.5	df=2		
소품류의 지 정장소에 대 한 수납여부	항상 그렇다	271(58.3)	62.0	52.9	X ² =4.19	59.1	54.8	60.6	X ² =1.39	
	대체로 그렇다	173(37.2)	34.4	41.3		37.0	40.4	34.5		
	그렇지 않다	21(4.5)	3.6	5.8	df=2	3.9	4.8	4.8	df=4	
가구 선호도	발박이식	152(32.7)	37.0	26.5	X ² =5.16**	31.2	29.5	37.0	X ² =2.23	
	구입식	313(67.3)	63.0	73.5	df=1	68.8	70.3	63.0	df=2	
수납에 대한 정보원	주위 사람들	136(29.2)	29.7	28.0		36.4	24.0	27.3	X ² =10.09	
	잡지, 신문	172(37.0)	43.1	28.6	X ² =18.14***	29.9	39.0	41.8		
	TV프로그램	75(16.1)	11.2	23.3	*	16.2	19.9	12.7		
	상점의 진열	82(17.6)	15.9	20.1	df=3	17.5	17.1	18.2		df=6
수납정보에 대해 취하는 방법	관심있게 본다	318(68.4)	68.8	66.7		68.2	66.4	70.3	X=6.19	
	기록해 둔다	42(9.0)	9.8	7.9	X ² =13.48**	10.4	6.8	9.7		
	스크랩해 둔다	21(4.5)	6.5	1.6		2.6	5.5	5.5		
	직접실행에움긴다	35(7.5)	7.6	7.4	df=4	7.1	10.3	5.5		df=8
	별관심 없다	49(10.5)	7.2	15.3		11.7	11.0	9.1		
Total	N	465	276	189	465	154	146	165	465	
	(%)	(100.0)	(59.4)	(40.6)	(100.0)	(33.1)	(31.4)	(36.5)	(100.0)	

유의수준 * p<.05 ** p<.01 *** p<.001

대한 개선만으로도 합리적인 수납행동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어느정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정리정돈 습관이 몸

에 베이도록 하고, 불필요한 수납물을 일정주기에 한번씩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좁은 공간을 넓게 사는 지혜일 것이다.

〈표 5〉 수납하기 가장 힘든 항목과 그 이유와의 관련

N(%)

수납하기 힘든 항목 항목을 선택한 이유	식생활용품	의류용품	취미학습 용 품	일상용품	비일용품	Row Total
불필요한 수납물이 많다.	18(20.7)	10(9.7)	20(17.1)	7(18.4)	25(20.8)	80(17.2)
수납공간의 미확보	39(44.8)	60(58.3)	48(41.0)	10(26.3)	49(40.8)	206(44.3)
가족원의 사용후 정돈미비	15(17.2)	23(22.3)	24(20.5)	16(42.1)	13(10.8)	91(19.6)
주위환경과의 어울리지 않음	14(16.1)	7(6.8)	23(19.7)	5(13.2)	30(25.0)	79(17.0)
기 타	1(1.1)	3(2.9)	2(1.7)		3(2.5)	9(1.9)
비 고	$X^2=41.52^{***}$			df=16		465(100.0)

유의수준 *** p<.001

취미생활용품에 대한 수납공간 확보는 전체적으로 보면 78.3%가 취미생활용품에 대해서 수납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주택종류의 변인과 $p < .05$ 수준, 규모의 변인에 대해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 즉, 규모가 작을수록 확보율이 낮았고 독립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 있어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부¹⁷⁾¹⁸⁾에서 조차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시설기준을 제시하면서 20평형에서는 주택 전체가 2.42평 이상의 수납공간이 필요하며 창고는 최소 0.18평 이상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용품의 수납에 대한 언급은 미흡한 편이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납하기 가장 힘든 항목으로 취미, 학습용품을 들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공간확보가 힘든 이런 물품의 수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수납에 대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잡지, 신문(37.0%)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주위사람(29.2%), 상점의 진열(17.6%), TV프로그램(16.1%)의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어 매스컴을 통해서 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활동등이 요구된다. 주택종류의 변인이 $p < .001$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경향은 전체적인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수납의 정보에 대해 취하는 방법에서는 전체적으로는 70.3%가 「관심있게 본다」이며, 「직접실행에 옮긴다」가 7.5%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p < .01$ 수준에서 주택종류의 변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독립주택 모두에서 「관심있게 본다」가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방법인데 비해 「직접실행에 옮긴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인 것으로 보아 수납공간에 대한 불만족을 많이 느끼면서도 직접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공간적 여유가 없음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주거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생활을 하면 갈등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주거 이동까지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설계의 단계에서는 물리적 개선없이도 합리적인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는 거주자의 요구가 뒷받침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거주자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공간효율과 합리적인 수납행동을 몸에 익혀야 하겠으며, 사회교육 측면에서는 매스컴을 통하여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에 힘쓰면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結 論

본 연구는 수납공간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종류, 규모에 따른 수납의식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납공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주택종류와 규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으며 16평미만과 공동주택에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아파트에 있어 합리적인 수납공간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부족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주택규모와 유의미한 차가 보이며 선반설치, 가구마련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납시설을 이동식 가구나 손쉬운 보조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납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에서 Dead Space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

3) 수납의 비중도는 주택규모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정리」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4) 수납하기 힘든 항목은 주택종류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일용품」을 수납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이유로는 수납공간의 미확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미생활용품에 대한 수납공간 확보가 평수가 적을수록 낮았고 독립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5) 수납에 대한 정보는 「잡지, 신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있었으며, 수납의 정보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방법은 「관심있게 본다」는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직접 실행에 옮긴다」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으로 보아 주택설계 단계에 있어서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거주자의 입장에 있어서 공간효율과 합리적인 수납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공간과 인간(행동)에 초점을 두고 수납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을 다룬 것

으로 합리적인 수납공간 계획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수납공간 계획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을 병행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거주자들의 수납에 대한 의식을 기초로 하여 물리적인 측면에 주목한 물품수납량과 종류, 수납공간 확보를 파악을 위한 실측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이명호, 김용팔, 주택론, 광림사, 1976
2. 신경주, 주거학, 수확사, 1987
3. 이명옥,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1
4. 안호협, 아파트 가구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77
5. 최목화, 현대 도시의 주거 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Vol.2 No.1, pp.1~12, 1991
6. 中島喜代子 外 4人, 生活觀の要因を考慮する生活用品保有に影響を與える諸要因, 日本建築學會計劃係論文報告, No.371, 1985
7. 이규택,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1990
8. 송규풍, 아파트 수납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9. 정규복, 住空間에서 본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982
10. 손광재, 도시주택 수납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27 No.4 pp.73~83, 1989
11. 박영순, 노현선, 아파트 거주자의 물품수납 의식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2 No.2 pp.1~12, 1990
12. 김희재, 주거환경 변인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1
13. 이명옥, 안옥희,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I), 한국주거학회지 Vol.2 No.2 pp.1~12, 1991
14. 安玉姬 外 2人, 韓日にける居間の照明環境に關する比較研究, 日本家政學研究 Vol.35 No.1 pp.70~76, 1988
15. 三宅一郎 外 3人, SPSS統計パッケージII, 東洋經濟 新報社 pp.180~193, 1986
16. 이정근, 소규모 주거 공간의 효율 극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7. 건설부, 국민주택의 적정규모와 부대복리시설 기준 연구, 1976
18. 건설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1978